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11.22~24)

1.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수출규제 관련(22,23일)

□ [한일 양국 정부 발표 내용]

- (한국 정부) 한국 정부는 11월 22일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발표¹⁾
 - 한국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함(협정 종료의 조건부 연기).
 - 또한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정부의 3개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함.
- *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를 결정한 이유는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 의향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²⁾
- (일본 정부)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수출당국과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였으나, 3개 소재의 수출규제와 관련, 기존의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³⁾⁴⁾
 - 경제산업성의 이이다(飯田) 무역관리부장은 3개 소재의 개별허가 규제는 유지할 것이며,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조치도 지속할 것이라고 하였음.

1) 청와대 홈페이지, 「지소미아(GSOMIA) 관련 김유근 NSC 사무처장 브리핑」 (2019. 11. 22).

2) 「青 “日이 수출규제 재검토 의향 보여서 지소미아 종료 연기”」 『연합뉴스』 (2019. 11. 23).

3) 경제산업성 기자회견 내용 및 「GSOMIA失効回避、韓国、破棄通告を停止、輸出管理の政府間協議へ。」 『日本経済新聞』 (2019. 11. 24). 및 「GSOMIA発言要旨、日本、個別審査変わらず。」 『日本経済新聞』 (2019. 11. 23).

4) 다만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결정과 관련하여 청와대 김유근 사무처장이 22일 6시에 발표한 것과 달리, 일본 언론들은 한일 간 동시에 발표하기로 약속한 시간인 6시 이전인 5시(NHK 보도시각은 22일 16시 56분)에 이미 보도를 시작하였으며, 경제산업성은 청와대 발표보다 약 8분 늦은 6시 8분에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음.

* (개별허가 관련) “향후에도 개별심사를 통해 3개 소재들의 허가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에 변경은 없지만, 건전한 수출실적을 쌓는 것과 한국의 적절한 수출규제 운용 등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발언

* (수출규제와의 관련) “지소미아는 외교 당국자간 군사정보의 교환이며, 수출규제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수출관리 당국자로서 판단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지소미아와는 일절 관련이 없다”고도 발언

○ (양국 합의) 양국 정부는 통상부문 국장급 대화 개시에 합의하였으며, 강경화 장관과 모테기(茂木) 외무성 장관은 12월 중순 중국에서 한일 정상 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하기로 합의⁵⁾

2.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통보 효력 정지 관련 일본 반응

□ [일본 정부 동향]

○ 아베 총리를 비롯, 모테기 외무장관, 고노(河野) 방위장관은 한국의 발표 이후 “한국 측이 전략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발언⁶⁾

- 아베 총리를 포함한 정부 주요 인사들은 이번 한국 정부의 결정을 두고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엄중한 가운데 한미일 3국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한국 측이 전략적으로 판단한 결정”이라고 발언(22일, 발표 직후)

* NHK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장관은 미국 국무부 장관과 22일 회담, 한국의 지소미아 결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동아시아 역내 안보 환경이 불안정한 가운데 미일에 한국을 더한 3국의 안전보장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일치하였음.⁷⁾

○ 그러나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22일 한국 정부의 발표 직후 “일본이 양보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이 너무 강해서 한국이 물러났다는

5) 「日韓外相 来月の日韓首脳会談開催に向け調整で一致」 『NHK NEWS WEB』 (2019. 11. 23).

6) 「安倍首相「韓国の戦略的判断」」 『NHK NEWS WEB』 (2019. 11. 22), 「河野防衛相「韓国側も戦略的に考えた決定」」 『NHK NEWS WEB』 (2019. 11. 22), 外務省, 「茂木外務大臣臨時会見記録」, (2019. 11. 22). 홈페이지 : https://www.mofa.go.jp/mofaj/press/kaiken/kaiken4_000896.html (검색일: 201. 11. 22).

7) 「茂木外相 米國務副長官と会談“日米韓 安全保障上の協力重要”」 『NHK NEWS WEB』 (2019. 11. 23).

이야기다”라고 주변에 말했다”고 보도⁸⁾

-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수상관저의 한 관계자는 21일 미국이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가결시킨 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연기(일본측 표현)한 것과 관련, “워싱턴의 파괴력은 대단하며, 한국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도 발언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한 고관은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못한 것, 일본의 한국수출규제와 관련하여 WTO 제소를 중단한 것 등을 들어 “한국이 2패 하였다”고 발언⁹⁾

□ [일본 언론 동향(23,24일 기준)]

- NHK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결정과 관련,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과 연대하여 마지막까지 교섭한 결과라고 환영”하고 있다고 보도¹⁰⁾
- 산케이신문은 24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관련 결정을 내리기 며칠 전에 일본 정부에게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하였으며, 일본 정부의 타협하지 않는 전략이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¹¹⁾
- 산케이신문은 한국 정부의 연락을 받고 일본 정부 관료들이 회의를 소집, 대응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총리가 “일절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로서 수출규제를 지속할 방침도 재확인하였다고 보도함.
- 또한 한국이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일본도 무역 당국자간 협의를 시작할 것을 승인했다고 보도함.
- 이에 따라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로서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한미일 연대라는 ‘유일한 대의명분’을 들어 지소미아를 유지하도록 한국에 촉구한 전략이 성공한 것”이라고 논평

8) 「失効回避の裏、米が「圧力」 GSOMIA維持、日韓に働きかけ」 『朝日新聞』 (2019. 11. 24).

9) 「日韓、対話機運も溝深く 輸出規制、徴用工 思惑にずれ 名古屋で外相会談」 『静岡新聞』 (2019. 11. 24).

10) 「GSOMIA 日本は維持歓迎 「徴用」でも韓国の対応に期待」 『NHK NEWS WEB』 (2019. 11. 23).

11) 「数日前にWTO提訴中断打診 日本 軟化を察知」 『産経新聞』 (2019. 11. 24).

3. 일본 정부·언론의 지소미아 동향에 대한 청와대의 유감 표명 관련

□ [동향]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정부의 지소미아 관련 보도에 대해 양국의 합의 내용과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의 긴급 브리핑을 24일 오후 실시¹²⁾
- 정 실장은 일본 정부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양국의 합의 내용과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이 외교정책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고 본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함.
- * 한국의 수출관리제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개별품목 허가를 포괄 허가로 바뀌나간다는 공감대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임에도 경제산업성은 여전히 개별허가를 유지할 것이며, 한국 정부가 먼저 WTO 제소 중단 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발표
- 정 실장은 23일 한일외교장관회의에서 우리 측 항의를 전했으며, 일본으로부터 경제산업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았다고 공개함.

□ [일본 정부 동향]

-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일본 측이 사과를 했다는 것과 관련하여 “그런 사실은 없다”고 부정¹³⁾

□ [일본 언론 동향]

-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내에서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관련하여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항의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자국 내 비판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¹⁴⁾

12) 「靑 작심 비판…"아베, 양심 갖고 한 발언인지 의문"」 『SBS』 (2019. 11. 24).

13) 「韓国大統領府、G S O M I A 巡る日本側発表に抗議…「合意内容を歪曲」」 『読売新聞』 (2019. 11. 24).

14) 각주 13의 요미우리신문